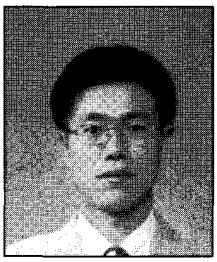
2002 포장기술사

>>>

해외전시회 참여통한 포장산업 기술발전 강조

정부차원 포장 기술사 육성 및 연구 지원해야



신 봉 호
해태제과(주) 디자인포장팀 팀장

해태제과 디자인포장팀 신봉호 팀장은 포장분야에 있어 '최고 위치에 도전'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제66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포장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현재 제과 및 식품분야의 포장 개발 및 설계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신 팀장은 포장산업이라는 커다란 범주안에서 식품뿐만이 아닌 다양한 포장재들을 접하면서 활용가능한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보고자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신 팀장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포장' 이라는 것이 어필되지 않는데 대해 심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가 만든 포장재가 국내 · 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그는 '실용신안 등록증' 을 받았을 때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봉호 팀장은 식품분야의 graphic design과 structural design의 조화로운 시너지 효과에 많은 관심이 있다. "포장재 종류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효과를 살릴 수 있어 흥미롭다"는 그는 기회가 닿는다면 서로 다른 이종간 복합포장재질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계획이다.

신봉호 팀장은 국내 포장산업이 과거에 비해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포장 업체들이 해외 포장전시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해외전시회 참여는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국내 포장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및 포장단체들의 포장 폐기물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신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랬다.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학등 교육계를 비롯한 연구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장 기술사 등과 같은 포장전문인의 육성을 위해서도 포장학과 신설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팀장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구매를 억제하는 지혜와 재사용, 재자원화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덧붙이면서 결론적으로 total cost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포장산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게 포장분야 전문기술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신봉호 포장기술사. 그는 국내 포장산업 발전은 관련업계의 종사자와 포장기술사의 몫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ko